제7장

한국 실학 연구

하한솔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0년에 국내에서 발표된 조선 후기 실학과 관련된 논문들을 정리, 분석한 것이다. 이때 '정리'는 각 논문들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류함을, '분석'은 유사한 주제의 논문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본다는 것이다.

실학과 관련된 논문을 선정할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인물별로 분류할 때 발생한다. 왜냐하면 '실학'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논쟁적이며, 이에 따라서 특정 인물을 실학자로 분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성호학파의 학자들과 정조이다. 이익 및 그의 후학들은 부분적으로 성리학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성리학이라는 큰 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하지만 '실학의 집대성자'라고 불리는 정약용의 학문적 연원으로서 실학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보자면, 이익과 그의 후학들에 관한 논문을 분석하는 것은 실학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조는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등의 실학자들이 활동하던 당시의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정약용과 박제가 등을 초계문신으로 등용했고, 문체반정을 통해 박지원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논문을 분석하는 것 역시 유의미하다. 이렇듯 본 보고서는 흔히 실학자로 분류되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실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들 역시 일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문학계 및 사학계에서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문학은 비록 논증적인 글쓰기 방식은 아니지만, 박지원은 자신의 철학을 표현하기 위하여 소설의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비록 문학작품에 관한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인물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분류에 포함시켰다. 사학계에서 발표된 논문들 일부를 포함한 것은 특정 인물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와 그가 처했던 역사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사상가의 경세학 혹은 경장론을 연구할 때, 철학계와 역사학계의 접근 방식이 달라 보인다. 예를 들어 철학계에서는 그 논의들의 정치철학적 함의에 주목하지만 사학계에서는 실질적 효용가능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어느 실학자의 경세학 혹은 경장론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철학계와 사학계의 논의들을 아울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이번 보고서는 작년에 비하여 유학(특히 실학)에 대한 개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학술논문 100편, 박사학위논문 3편 등 총 103편을 분석 범주에 넣었다. 이는 학술논문 115편, 박사학위논문 7편이 발표되었던 작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숫자다. 하지만 본 보고서가 작년에 비하여 개방적인 기준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0년은 실학에 관한 연구가 다소 주춤했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2. 인물별 분류

본 보고서는 인물별 범주를 유형원, 박세당, 성호학파, 북학파, 정약용, 정조, 기타로 설정했다. 2019년 보고서와 비교하면, 2020년 박세당에 대한 연구성과가 다수 발표되어 새로운 범주로 신설됐다. 정조는 본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포함한 인물이므로 신설됐다. 반면 최한기에 대한 연구성과가 적었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했다. 이와 같은 범주로 2020년에 발표된 연구성과를 분류해보면, 유형원 5편, 박세당 4편, 성호학파 21편, 북학파 15편, 정약용 44편, 정조 7편, 기타 11편이다. 둘 이상의 실학자들을 비교한 연구가 5편(이익-정약용 1편, 정약용-유형원 1편, 유형원-유수원-정약용 1편, 윤휴-정약용 1편, 홍대용-정약용-최한기 1편)이 있었는데, 각 범주에 중복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이들을 모두 합하면 총 100편인데, 이는 '실학'이라는 개념을 다룬 논문 3편이 인물별 분류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표를 작성할 때, 가독성을 위하여 한문 또는 국한문이 병기된 것들은 모두 한글로만 표기하였음을 밝혀둔다.

2019년에는 정약용에 관한 논문이 전체 논문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는데, 2020년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로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비교연구들에서 모두 정약용을 언급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약용은 여전히 실학이라는 연구 영역에서 일종의 표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유형원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Boudewijn Walraven	유형원과 동인도회사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2	기지상(祁志祥)	명청 실학 계몽사조와 유형원 사상의 새로운 이론의 관계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3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병농일치론과 군사제도 개혁안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4	이욱	조선후기 실학자의 염정 개혁안과 성격	남도문화연구 40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5	최윤오	반계 유형원과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 비교	한국사연구 188	한국사연구회

유형원에 관한 연구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하던 추세였는데, 2020년에는 5편이 발표되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복수의 실학자를 다룬 연구가 2편이다. 이욱은 유형원과 유수원, 정약용의 염정 개혁안을 비교 고찰하고, 최윤오는 유형원과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을 비교 고찰했다. 특히 이욱의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실학자들의 세제 개혁안을 다룰 때, 군포와 공납 등 인두세를 중심으로 다루었던 것에서 벗어나 염전에 매기는 세금을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는 실학자들의 염정 개혁안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비록 구체적인 방법론은 달랐지만, 그들이 모두 염정 개혁을 통하여 농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국가재정을 확보하려고 했던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즉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실학자들이 조세 감면을 통하여 농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욱의 연구는 실학자들이 농민에 대한 조세 감면과 동시에 국가재정 확보에도 힘썼다는 점을 논증했다.

2) 박세당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인옥	서계의 『중용』 분장절체계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5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황인옥	『사변록 중용』의 양명학적 양상 고찰	유학연구 5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김학목	박세당의 『장자』 주석 목적	율곡학연구 43	(사) 율곡연구원
4	최정묵	서계 박세당 사상의 기본입장	유학연구 5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서계 박세당에 관한 학술논문은 2018년 6편이 발표되었다가 2019년에는 단 1편만 발표되었는데, 2020년에는 4편이 발표되었다. 박세당은 성리학의 용어들을 일부 차용하면서도 성리학적 경학으로부터 이탈을 시도했고, 『장자』 주석서인 『신주도덕경』과 『남화경주해산보』를 남겼다는 점 때문에, '그의 학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질문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황인옥의 「『사변록 중용』의 양명학적 양상 고찰」을 주목할 만하다. 그는 박세당이 지천 최명길을 통하여 하곡 정제두와 교분이 있었고 양명학적인 경향을 보였던 최명길의 학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박세당이 양명학을 접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는 기존의 시각과 다른 가능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성호학파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전성건	순암 안정복의 『가례』 연구와 그 방향	한국실학연구 39	한국실학학회
2	김수경	순암 안정복의 『시경』 인식 고찰	한국실학연구 39	한국실학학회
3	부유섭	안정복의 『잡동산이』와 진인석의 『경세팔편류찬』	한국실학연구 39	한국실학학회
4	이창일	신후담 역 해석의 통합적 방법론	유학연구 5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5	황인옥	성호의 경┌전 체제 『중용』 해석 연구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회
6	최정연	성호 이익의 사칠설과 이를 둘러싼 남인계 지식인의 반응	율곡학연구 42	(사) 율곡연구원
7	오지석	적응과 변용으로 본 성호 학맥과 보만재 가학에 나타난 서학인식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4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8	이정림	이익의 새로운 재이 분류와 재이에 대한 책임 소재의 확대	한국과학사학회지 42	한국과학사학회
9	이병유	이황과 이익의 상┌제례 예설 비교	한국사학사학보 41	한국사학사학회
10	최석기	하빈 신후담의 『중용』 해석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77	한국한문학회
11	전성건	『가례질서』와 『성호예식』의 역사성	민족문화연구 8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2	심경호	『성호사설』의 생물지식 재편 시도	한문학논지	근역한문학회
13	김연수	18세기 성호학파의 혼례관	조선시대사학보 92	조선시대사학회
14	박지현	『이자수어』 편찬에 나타난 성호의 퇴계학 계승 의식	한국학 43	한국학중앙연구원
15	정철민	순암의 공부론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동방학 4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16	김민재	순암 안정복의 청렴관과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일 고찰	동방철학 91	대동철학회

17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사서 해석	동양고전연구 81	동양고전학회
18	이재복	사칠설에 나타난 신후담의 사유방식	태동고전연구 45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	이상익	하빈 신후담의 이성이기론과 그 비판	퇴계학논총 35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0	서근식	『주역절중』에 대한 정조와 조선후기 실학파의 반응 양상	한국철학논집 65	한국철학사연구회
21	김경남	성호 이익의 『소학질서』 역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성호학파에 대하여 2017년 7편, 2018년 12편, 2019년에는 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2020년에는 박사논문 1편을 포함하여 총 2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를 다시 인물별로 분류해보면 성호학파의 여러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3편, 성호 이익에 대한 연구가 8편, 순암 안정복에 대한 연구가 6편, 하빈 신후담에 대한 연구가 4편이다. 예년에 비하여 안정복에 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2020년 『순암집』 완역 출판을 전후로 안정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호좌파 혹은 신서파로 분류되는 신후담에 대한 연구과 성호우파 혹은 공서파로 분류되는 안정복에 관한 연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기할 만다.

이 가운데 이상익의 「하빈 신후담의 이성이기론과 그 비판」이 눈에 띈다. 이전에 이루어졌던 신후담의 사단칠정설에 관한 연구들은 성호학파 내의 사상적 연관성과 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이상익의 연구는 당시대의 기호학파의 사상과의 동이점을 분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에 따르면, 신후담의 사단칠정설은 '이성이기론'과 '『중용』의 희노애락은 『예기』의 칠정과 다르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때 이성이기론은 성을 '성명'과 '형기'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이상익은 이에 대하여, 신후담이 '형기'를 리로 설명하기도 하고 기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관되지 못하지만, 기호학파에서 '심기'와 '형기'를 구분했던 것과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4) 북학파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성순	박제가 이용후생론의 역사적 의의	역사와실학 72	역사실학회
2	임종태	조선 후기 북학론의 수사 전략과 중국 기술 도입론	한국문화 9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변원섭	북학파 병론으로 본 박제가의 강병육성책 연구	군사연구 149	육군군사연구소
4	정규식	분뇨 서사로 읽는 연암 박지원의 개혁 사상	국어국문학 191	국어국문학회
5	김인규	연암 박지원의 세계관에 나타난 역사관	우계학보 38	우계문화재단
6	정성식	18세기 북학파의 역사의식	유교사상문화연구 82	한국유교학회
7	허태용	근┌현대 지성사의 전개와 조선후기 '북학'	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회
8	최지형	연암 박지원의 천주교 인식과 대응 양상	대동문화연구 11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9	이종성	연암사상에 나타난 장자철학적 교우론의 특성	동서철학연구 95	한국동서철학회
10	이종성	연암 박지원의 도가적 이상세계에 대한 실험적 사유	대동철학 92	대동철학회
11	이설경, 서영빈	「허생전」에 투영된 박지원의 경제 사상	영주어문 45	영주어문학회
12	이종성	연암 박지원의 현실비판에 대한 도가철학적 모색	율곡학연구 42	(사) 율곡연구원

13	황소연	일본학의 성립과 북학의 전개	동서 비교문학저널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14	이인화	18, 19세기 자연과학적 기철학의 문화공존 윤리	동서철학연구 97	한국동서철학회
15	김령매	원매와 박제가의 성령설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20년에 북학파에 관한 연구는 총 15편 발표되었다. 이는 2017년 6편, 2018년 14년, 2019년 17편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추세에 비하여 다소 주춤한 숫자라고 할 수 있다. 15편을 다시 인물별로 분류해보면, 북학파 전반에 관한 연구가 4편, 박제가 3편, 박지원 7편, 홍대용(이인화, 「18, 19세기 자연과학적 기철학의 문화공존 윤리」) 1편으로, 박지원에 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정성식의 「18세기 북학파의 역사의식」은 기존의 북학파의 역사의식에 관한 연구가 홍대용의 '역외춘추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에서 벗어나, 박지원과 박제가 역시 자주적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정성식은 북학파가 추구한 자주적 역사의식의 최종 귀결점은 '부국강병'이었다고 주장한다.

5) 정약용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현암 이을호의 맹자 번역학과 해석학	다산학 36	다산학술문화재단
2	전성건	신정인보론	다산학 36	다산학술문화재단
3	윤석호	홍이섭의 다산학 연구	다산학 36	다산학술문화재단

4	백민정	최익한의 다산학 이해와 그 의미	다산학 36	다산학술문화재단
5	황병기	『역학서언』의 성서 과정 연구	다산학 37	다산학술문화재단
6	윤석호	가장본 『경세유표』의 서지적 검토	다산학 37	다산학술문화재단
7	노경희	『대동수경』의 이본과 서지적 성격 연구	다산학 37	다산학술문화재단
8	이숙희	한역 서학 신학서의 신정론 수용과 정약용의 인격적 천관	다산학 37	다산학술문화재단
9	윤석호	〈방례초본인〉에서 본 유배기 다산의 경세학	역사와실학 71	역사실학회
10	정경민	정약용의 재원확보구상과 관료 및 민의 역할	역사와실학 72	역사실학회
11	서근식	『주역절중』에 대한 정조와 조선후기 실학파의 반응 양상	한국철학논집 65	한국철학사연구회
12	이애란	인심에 내재한 개인성 고찰	한국철학논집 66	한국철학사연구회
13	송양섭	다산 정약용의 호구운영론	대동문화연구 11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4	이욱	조선후기 실학자의 염정 개혁안과 성격	남도문화연구 40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5	김경희	오규 소라이와 정약용의 효사상의 비교연구	동양철학연구 103	동양철학연구회
16	최윤오	반계 유형원과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 비교	한국사연구 188	한국사연구회
17	권윤희	다산 정약용 미학사상의 한국적 특성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	국제문화기술진흥원
18	함영대	다산의 저술과 학술교유	다산과현대 13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19	최윤오	『목민심서』에서 『경세유표』로의 전환	학림 45	연세사학연구회

20	박미해	다산 정약용의 『거가사본』과 가족윤리	다산과현대 13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1	김선희	남북한의 거울에 비친 실학과 다산	시대와 철학 3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2	이숙희	정약용의 신학적 유학	가톨릭평론 30	우리신학연구소
23	박병만	『중용』 치중화의 공효 실현 과정에 대한 율곡과 다산 해석의 현대적 함의	국학연구 42	한국국학진흥원
24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이단론	퇴계학논총 35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25	지준호	다산 정약용의 군자론	동양문화연구 33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6	박찬호	다산 정약용의 천명관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57	동양한문학회
27	엄국화	다산 역학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48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8	김호	조선후기 유배인의 서간 토론	기전문화연구 41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9	도주경	정약용의 향촌통치구상과 사족 위상 강화론	조선시대사학보 92	조선시대사학회
30	한정길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와 그 정치사상적 의미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31	김한식	다산 사상에 나타난 민권논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9-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32	심순옥	조선후기 기해예송의 '사종설'에 드러난 참의미	유학연구 5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3	김보름	정약용 저작집 체제 연구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4	이인화	18, 19세기 자연과학적 기철학의 문화공존 윤리	동서철학연구 97	한국동서철학회
35	서근식	다산학단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	민족문화 55	한국고전번역원

36	최윤오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과 현실인식	동방학지 19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37	김 택 , 이홍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역병관과 애민사상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48	한국행정사학회
38	지준호, 황종원	다산 정약용의 군자 공부론	인 격 교 육 14-4	한국인격교육학회
39	최정연	다산 정약용의 '영명지체' 개념에 대한 논의	한 문 학 논 집 55	근역한문학회
40	고승환	정약용의 상제론 연구에 대한 이율배반 검토	종 교 연 구 80-3	한국종교학회
41	이난숙	왕필, 소옹의 중국역학과 이이, 정약용의 한국역학에 담긴 창의적 우주관	율 곡 학 연 구 41	(사) 율곡연구원
42	김국화	조선 후기 한역속담집 《이담속찬》의 문헌적 특성과 가치 연구	중국조선어문 229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43	송의원	호락논쟁과 다산 정약용의 종교적 인간이해	기 독 교 철 학 30	한국기독교철학회
44	심순옥	다산 실학의 성립과 상제관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20년에는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연구가 44편 되었는데, 2019년에 60편이 발표되었던 것에 비교한다면, 다소 줄어든 숫자이지만, 2020년에 발표된 실학 관련 논문들을 인물별로 분류해보면 여전히 가장 많은 숫자이다. 『다산학』 36호는 정약용에 관하여 연구하던 초기에 이루어진 작업들에 대한 정리 및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김선희의 「남북한의 거울에 비친 실학과 다산」을 더하면, 2020년은 초창기에 이루어진 정약용에 대한 연구를 정리했던 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 철학 혹은 신학의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4편(이숙희 2편, 엄국화 1편, 송의원 1편) 발표되었다.

이 가운데 최정연의 「다산 정약용의 '영명지체' 개념에 대한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정약용은 자신의 철학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상들을 흡수하면서도 그 개념

들에 기존과는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최정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심'으로 이해해왔던 '영명지체(靈明之體)'라는 개념을 분석하고, 정약용이 그 개념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추적했다. 최정연에 따르면 이익과 남당 한원진의 글에서도 '영명지체'라는 표현이 발견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영명지체'라는 개념은 심 혹은 심의 지각을 지칭한다. 그런데 성리학의 구도에서 심은 '기의 에센스(精爽)'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명지체'는 기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반면 정약용은 기의 질료성와 무관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지시하기 위해서 '영명지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약용은 롱고바르디(Nicholas Longobardi, 龍華民, 1559~1654)의 『영혼도체설(靈魂道體說)』을 통하여 이러한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다는 것이 최정연의 주장이다. 이러한 연구는 정약용이 사용하는 '영명지체'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엇을 지시하며, 성리학자들의 같은 표현과 어떻게 다른지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6) 정조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권오영	정조의 주자학과 정치이념	진단학보 135	진단학회
2	이동화	정조의 주희 붕당론 독해와 활용	한국문화 9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	이원석	정조와 윤행임의 「대학장구 서문」 해석과 인물성동이 논쟁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	강문식	정조의 주자학 연구와 『주서백선』 편찬	한국문화 8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5	안효성	정조의 '심성론'과 '수양론의 전개'	동서철학연구 96	한국동서철학회
6	김유곤	정조의 대학 이해의 특징	동양철학연구 102	동양철학연구회
7	백민정	정조의 경학 이해와 정치의 문제	한국문화 8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정조는 자신을 정치적인 왕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 스승(君師)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초계문신 제도를 통하여 신진 관료를 등용함과 동시에 그들을 학문적으로 지도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홍재전서(弘齋全書)』, 「경사강의(經史講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조가 집권하던 시기가 정약용 및 북학파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정조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실학자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백민정은 정조의 경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다. 2020년 그는 「정조의 경학 이해와 정치의 문제」에서 정조의 『대학』에 대한 이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성리학의 일반적인 이해와 상이점들을 제시했다. 백민정에 따르면, 정조의 경학은 학문과 정치를 일치시키려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서 정조는 『대학장구』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대학』을 이해한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 「전10장」의 '혈구지도(絜矩之道)'와 '용인(用人)', '이재(理財)'의 관계에 대한 해석 문제이다. 당시의 강원들은 혈구지도와 용인, 이재의 관계에 대하여, '군주가 자신의 호오가 일반 백성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서(恕)를 실천해나가는 과정'을 혈구지도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용인과 이재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하여 정조

는 "학자의 호오는 제 한 몸을 착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에 불과하지만, 임금의 호오에는 만백성의 행불행이 걸려있다."고 주장하여, 국왕의 호오에 따라 용인과 이재 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렇듯 정조는 백성과 군왕, 나아가 사대부와 군왕을 구분함으로써 군왕의 특수한 지위를 강화하려 했다. 이러한 담론을 통하여 백민정은 조선시대의 정치 지형을 이해할 때 정치론을 규범적 본성론이나 윤리학으로 간주할 것 이 아니라, 인품의 수준과 학문의 차이를 '정치적인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7) 기타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헌창	『임원경제지』에서의 지식 담론의 발전	한국실학연구 39	한국실학학회
2	하우봉	동아시아의 백과전서파 실학과 황윤석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3	구자익	혜강 최한기의 경사론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4	홍유빈	추금 강위의 경학과 시경관	한국한문학연구 79	한국한문학회
5	왕수원	유득공의 중국체험서사와 근대의식	한중인문학연구 68	한중인문학회
6	서근식	백호 윤휴 대학 해석의 신연구	율곡학연구 41	(사) 율곡연구원
7	김대중	신체유물론적 시각에서 본 심대윤의 '노동 옹호 윤리학'	민족문화연구 8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8	소진형	17세기 황극 해석과 왕권론 비교 연구	한국정치연구 29-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9	심순옥	조선후기 기해예송의 '사종설'에 드러난 참의미	유학연구 5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이인화	18, 19세기 자연과학적 기철학의 문화공존 윤리	동서철학연구 97	한국동서철학회
11	이욱	조선후기 실학자의 염정 개혁안과 성격	남도문화연구 40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0년에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기타로 분류한 것은 모두 11편이다. 이들을 다시 각 인물별로 분류해본다면, 풍석 서유구에 관한 것이 1편, 황윤석 1편, 혜강 최한기 2편(구자익, 이인화), 유득공 1편, 백호 윤휴 3편(서근식, 소진형, 심순옥), 심대윤 1편, 유수원 1편(이욱), 강위 1편이다. 이 가운데 2019년 최한기에 관한 10편의 연구가 발표된 것에 비하여 2020년에는 논문 편수가 많이 줄었다.

반면 윤휴에 관한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2020년 3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다시금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서근식의 연구는 주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서근식은 윤휴의 경학을 '고학적 입장'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러한 관점이 특정한 경로를 통하여 성호학파(특히 성호좌파)의 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의 논증에 따르면 『대학』의 저자 문제(윤휴가 『대학』이 자사의 저작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이후, 성호학파 내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대학』의 학문주체에 대한 문제(『대학』에서 말하는 주체를 군주로 이해하려는 경향), 명덕에 관한 문제(명덕을 효제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하여 윤휴와 성호좌파의 학자들(신후담, 이병휴, 정약용)이 같은 전거를 활용하는 등 유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전의 논문들에서 윤휴와 성호학파의 연관성에 대한 지적은 있었는데, 그의 논문은 이러한 입장을 경학적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논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3. 주제별 분류

주제별 분류에서는 작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경학, 철학, 정치경제,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때 '경학'은 연구의 초점이 특정 경학서를 분석하는 데 맞춰진 연구들이다. 예학과 관련된 연구성과 가운데 부분적으로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연구성과들도 있었지만, 분류의 일관성을 위하여 경학으로 분류하였다. 심성론, 수양론, 윤리학 등과 관련된 연구성과는 철학으로 분류하였다. 정치경제 부분은 경세학 및 구체적인 제도와 관련된 연구성과들을 포함한다. 이외의 연구성과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대체로 서지학, 이전의 연구성과를 정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1) 경학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황병기	『역학서언』의 성서 과정 연구	다산학 37	다산학술문화재단
2	전성건	순암 안정복의 『가례』 연구와 그 방향	한국실학연구 39	한국실학학회
3	김수경	순암 안정복의 『시경』 인식 고찰	한국실학연구 39	한국실학학회
4	서근식	『주역절중』에 대한 정조와 조선후기 실학파의 반응 양상	한국철학논집 65	한국철학사연구회
5	박병만	『중용』 치중화의 공효 실현 과정에 대한 율곡과 다산 해석의 현대적 함의	국학연구 42	한국국학진흥원
6	한정길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와 그 정치사상적 의미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7	황인옥	『사변록 중용』의 양명학적 양상 고찰	유학연구 5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8	심순옥	조선후기 기해예송의 '사종설'에 드러난 참의미	유학연구 5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황인옥	서계의 『중용』 분장절체계에 관한 연구	유학연구 5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0	이창일	신후담 역 해석의 통합적 방법론	유학연구 5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1	서근식	다산학단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	민족문화 55	한국고전번역원
12	홍유빈	추금 강위의 경학과 시경관	한국한문학연구 79	한국한문학회
13	황인옥	성호의 경「전 체제 『중용』 해석 연구	동서철학연구 98	한국동서철학회
14	서근식	백호 윤휴 대학 해석의 신연구	율곡학연구 41	(사) 율곡연구원
15	김학목	박세당의 『장자』 주석 목적	율곡학연구 43	(사) 율곡연구원
16	이병유	이황과 이익의 상「제례 예설 비교	한국사학사학보 41	한국사학사학회
17	최석기	하빈 신후담의 『중용』 해석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77	한국한문학회
18	전성건	『가례질서』와 『성호예식』의 역사성	민족문화연구 8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	김연수	18세기 성호학파의 혼례관	조선시대사학보 92	조선시대사학회
20	함영대	순암 안정복의 사서 해석	동양고전연구 81	동양고전학회
21	이원석	정조와 윤행임의 「대학장구 서문」 해석과 인물성동이 논쟁	태동고전연구 44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2	김유곤	정조의 대학 이해의 특징	동양철학연구 102	동양철학연구회
23	백민정	정조의 경학 이해와 정치의 문제	한국문화 8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4	김경남	성호 이익의 『소학질서』 역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20년에는 경학 부분에서 박사 논문 1편을 포함하여, 총 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경학에 대한 연구는 2017년 7편, 2018년 13편, 2019년 27편이었다. 2019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2017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숫자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시 대상 저서별로 분류해보면, 특정한 인물의 경학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논문 2편, 『중용』 5편, 예학과 관련된 논문 5편, 『대학』 4편, 『주역』 4편, 『시경』 2편, 『장자』 1편, 『소학』 1편이다. 이를 통해 2020년의 경학 연구는 『중용』과 『대학』이 연구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예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주목도가 덜한 『시경』과 『소학』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2020년에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홍유빈의 논문은 연구는 강위의 『시경』에 대한 이해를 다루었는데, 이는 강위라는 인물과 『시경』이라는 경전이 모두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강위는 추사 김정희의 제자이다. 홍유빈의 주장에 따르면, 강위는 기원 민노행과 김정희의 영향으로 청대 고증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금문경학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는 강위가 『시경』을 '간언하는 글(諫書)'로 이해하는데, 이는 『시경』의 편찬 목적을 교화로 이해하였던 성리학적 경학과는 다르다. 그는 강위가 민노행과 김정희를 통하여 이러한 입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분석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정약용 역시 이러한 시경관을 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홍유빈은 민노행과 김정희가 정약용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혹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공유되었던 이해방식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당시 지식인들 가운데 『시경』을 간서

로 이해하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홍유빈의 논문은 독자로 하여금 이후의 연구를 기대하게할 뿐만 아니라, 다산학단과 추사학단의 교유 관계를 설명할만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철학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봉규	초기 실학 연구의 학술사적 의의	다산학 36	다산학술문화재단
2	이숙희	한역 서학 신학서의 신정론 수용과 정약용의 인격적 천관	다산학 37	다산학술문화재단
3	박성순	박제가 이용후생론의 역사적 의의	역사와실학 72	역사실학회
4	정경민	정약용의 재원확보구상과 관료 및 민의 역할	역사와실학 72	역사실학회
5	이헌창	『임원경제지』에서의 지식 담론의 발전	한국실학연구 39	한국실학학회
6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실학, 그 개념 비교론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7	Boudewijn Walraven	유형원과 동인도회사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8	祁志祥	명청 실학 계몽사조와 유형원 사상의 새로운 이론의 관계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9	하우봉	동아시아의 백과전서파 실학과 황윤석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10	이행훈	개념의 수행성으로 본 근대 지식체계의 굴절	한국철학논집 64	한국철학사연구회
11	이애란	인심에 내재한 개인성 고찰	한국철학논집 66	한국철학사연구회
12	김경희	오규 소라이와 정약용의 효사상의 비교연구	동양철학연구 103	동양철학연구회

13	권윤희	다산 정약용 미학사상의 한국적 특성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	국제문화기술진흥원
14	박미해	다산 정약용의 『거가사본』과 가족윤리	다산과현대 13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15	이숙희	정약용의 신학적 유학	가톨릭평론 30	우리신학연구소
16	김영우	다산 정약용의 이단론	퇴계학논총 35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17	지준호	다산 정약용의 군자론	동양문화연구 33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18	박찬호	다산 정약용의 천명관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57	동양한문학회
19	엄국화	다산 역학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적 해석	기독교사회윤리 48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	최정묵	서계 박세당 사상의 기본입장	유학연구 50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1	구자익	혜강 최한기의 경사론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2	이인화	18, 19세기 자연과학적 기철학의 문화공존윤리	동서철학연구 97	한국동서철학회
23	지준호, 황종원	다산 정약용의 군자 공부론	인격교육 14-4	한국인격교육학회
24	최정연	다산 정약용의 '영명지체' 개념에 대한 논의	한문학논집 55	근역한문학회
25	고승환	정약용의 상제론 연구에 대한 이율배반 검토	종교연구 80-3	한국종교학회
26	이난숙	왕필, 소옹의 중국역학과 이이, 정약용의 한국역학에 담긴 창의적 우주관	율곡학연구 41	(사) 율곡연구원
27	송의원	호락논쟁과 다산 정약용의 종교적 인간이해	기독교철학 30	한국기독교철학회
28	김인규	연암 박지원의 세계관에 나타난 역사관	우계학보 38	우계문화재단

29	왕수원	유득공의 중국체험서사와 근대의식	한중인문학연구 68	한중인문학회
30	정성식	18세기 북학파의 역사의식	유교사상문화연구 82	한국유교학회
31	허태용	근┌현대 지성사의 전개와 조선후기 '북학'	한국사상사학	한국사상사학회
32	이종성	연암사상에 나타난 장자철학적 교우론의 특성	동서철학연구 95	한국동서철학회
33	이종성	연암 박지원의 도가적 이상세계에 대한 실험적 사유	대동철학 92	대동철학회
34	이종성	연암 박지원의 현실비판에 대한 도가철학적 모색	율곡학연구 42	(사) 율곡연구원
35	최정연	성호 이익의 사칠설과 이를 둘러싼 남인계 지식인의 반응	율곡학연구 42	(사) 율곡연구원
36	황소연	일본학의 성립과 북학의 전개	동서 비교문학 저널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37	김대중	신체유물론적 시각에서 본 심대윤의 '노동옹호 윤리학'	민족문화연구 88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38	오지석	적응과 변용으로 본 성호 학맥과 보만재 가학에 나타난 서학인식	한국기독교문화연구 14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39	이정림	이익의 새로운 재이 분류와 재이에 대한 책임 소재의 확대	한국과학사학회지 42	한국과학사학회
40	박지현	『이자수어』 편찬에 나타난 성호의 퇴계학 계승의식	한국학 43	한국학중앙연구원
41	정철민	순암의 공부론에 대한 교육학적 고찰	동방학 4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42	이재복	사칠설에 나타난 신후담의 사유방식	태동고전연구 45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43	이상익	하빈 신후담의 이성이기론(二性二氣論)과 그 비판	퇴계학논총 35	사단법인 퇴계학부산연구원
44	권오영	정조의 주자학과 정치이념	진단학보 135	진단학회

45	소진형	17세기 황극 해석과 왕권론 비교 연구	한국정치연구 29-1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46	이동화	정조의 주희 붕당론 독해와 활용	한국문화 9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7	강문식	정조의 주자학 연구와 『주서백선』 편찬	한국문화 8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8	안효성	정조의 '심성론'과 '수양론의 전개'	동서철학연구 96	한국동서철학회
49	최지형	연암 박지원의 천주교 인식과 대응 양상	대동문화연구 11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50	김령매	원매와 박제가의 성령설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51	심순옥	다산 실학의 성립과 상제관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철학 분야에서는 총 5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2020년에 발표된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숫자다. 이를 다시 세부 주제로 분류해보면, 2019년과 유사하게 심성론 및 윤리학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심성론에서는 박찬호, 「다산 정약용의 천명관 연구」, 최정연, 「다산 정약용의 '영명지체' 개념에 대한 논의」, 이재복, 「사칠설에 나타난 신후담의 사유방식」이 대표적이다. 윤리학에서는 이인화, 「18, 19세기 자연과학적 기철학의 문화공존 윤리」, 김대중, 「신체유물론적 시각에서 본 심대윤의 '노동 옹호 윤리학'」이 대표적이다.

2020년에 발표된 철학 관련 실학 논문들 가운데 몇몇 편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숙희의 「한역 서학 신학서의 신정론 수용과 정약용의 인격적 천관」, 「정약용의 신학적 유학」, 엄국화의 「다산 역학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적 해석」, 송의원의 「호락논쟁과 다산 정약용의 종교적 인간이해」, 오지석의 「적응과 변용으로 본 성호 학맥과

보만재 가학에 나타난 서학인식」, 최지형의 「연암 박지원의 천주교 인식과 대응 양상」은 서학 혹은 천주교와 실학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이들 대부분은 정약용과 서학의 관계에 관한 논문이기는 하지만, 오지석과 최지형의 논문은 기존에 주목받지 않던 인물들과 서학의 관계에 관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봉규의 「초기 실학 연구의 학술사적 의의」, 祁志祥의 「명청 실학 계몽사조와 유형원 사상의 새로운 이론의 관계」, 이행훈의 「개념의 수행성으로 본 근대 지식 체계의 굴절」, 임형택의 「17~19세기 동아시아 실학, 그 개념 비교론」 등 4편의 논문은 '실학'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논문들이다. 2019년에는 실학을 개념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이 3편 발표되었는데, 2020년에도 비슷한 숫자를 유지했다. 이는 학계에서 여전히 '실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祁志祥과 임형택의 논문은 실학 담론을 국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동아시아라는 공간적 배경 위에서 실학 담론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정치경제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석호	가장본 『경세유표』의 서지적 검토	다산학 37	다산학술문화재단
2	윤석호	〈방례초본인〉에서 본 유배기 다산의 경세학	역사와실학 71	역사실학회
3	부유섭	안정복의 『잡동산이』와 진인석의 『경세팔편류찬』	한국실학연구 39	한국실학학회
4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병농일치론과 군사제도 개혁안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5	송양섭	다산 정약용의 호구운영론	대동문화연구 11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6	이욱	조선후기 실학자의 염정 개혁안과 성격	남도문화연구 40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7	최윤오	반계 유형원과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 비교	한국사연구 188	한국사연구회
8	최윤오	『목민심서』에서 『경세유표』로의 전환	학림 45	연세사학연구회
9	도주경	정약용의 향촌통치구상과 사족 위상 강화론	조선시대사학보 92	조선시대사학회
10	김한식	다산 사상에 나타난 민권논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9-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11	최윤오	다산 정약용의 토지개혁론과 현실인식	동방학지 19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2	김 택, 이홍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역병관과 애민사상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48	한국행정사학회
13	임종태	조선 후기 북학론의 수사 전략과 중국 기술 도입론	한국문화 9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4	변원섭	북학파 병론으로 본 박제가의 강병육성책 연구	군사연구 149	육군군사연구소
15	정규식	분뇨 서사로 읽는 연암 박지원의 개혁 사상	국어국문학 191	국어국문학회
16	이설경, 서영빈	「허생전」에 투영된 박지원의 경제 사상	영주어문 45	영주어문학회
17	김민재	순암 안정복의 청렴관과 교육적 활용에 대한 일고찰	동방철학 91	대동철학회

2020년에 발표된 정치경제 분야 논문은 총 17편이다. 이 가운데 정약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논문이 모두 10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북학파 4편(종합 1편, 박제가 1편, 박지원 2편), 안정복에 대한 논문이 2편 발표되었다.

최윤오의 논문이 3편, 윤석호 2편, 송양섭 2편인데, 이를 하면 7편

으로 세 사람의 논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윤오는 대체로 정약용의 토지제도, 윤석호는 정약용의 『경세유표』, 송양섭은 다양한 인물들의 사회제도론을 연속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김한식의 「다산 사상에 나타난 민권논리」, 김택과 이홍기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역병관과 애민사상 연구」는 정약용의 민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밖에 정규식의 「분뇨 서사로 읽는 연암 박지원의 개혁 사상」와 이설경과 서영빈의 「「허생전」에 투영된 박지원의 경제 사상」은 문학적 표현물을 분석하여 박지원의 사상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4) 기타

번호	저자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현암 이을호의 맹자 번역학과 해석학	다산학 36	다산학술문화재단
2	전성건	신정인보론	다산학 36	다산학술문화재단
3	윤석호	홍이섭의 다산학 연구	다산학 36	다산학술문화재단
4	백민정	최익한의 다산학 이해와 그 의미	다산학 36	다산학술문화재단
5	노경희	『대동수경』의 이본과 서지적 성격 연구	다산학 37	다산학술문화재단
6	함영대	다산의 저술과 학술교유	다산과현대 13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7	김호	조선후기 유배인의 서간 토론	기전문화연구 41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8	김보름	정약용 저작집 체제 연구	유학연구 52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9	김국화	조선 후기 한역속담집 《이담속찬》의 문헌적 특성과 가치 연구	중국조선어문 229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10	심경호	『성호사설』의 생물지식 재편 시도	한문학논지	근역한문학회
11	김선희	남북한의 거울에 비친 실학과 다산	시대와 철학 31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20년에는 기타로 분류되는 논문이 총 11편 발표되었다. 이는 2019년의 37편에 비하여 줄어든 숫자이다. 이는 2019년에는 실학 담론에 관한 논문 및 서학 관련 논문을 철학에 분류하였지만 2020년에는 철학으로 분류하는 등 분류 기준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편의 가운데 심경호의 논문을 제외하면 10편 모두 직간접적으로 정약용과 관련된 것으로, 정약용에 관한 논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다산학』 36호에 수록된 함영대의 「현암 이을호의 맹자 번역학과 해석학」, 전성건의 「신정인보론」, 윤석호의 「홍이섭의 다산학 연구」, 백민정의 「최익한의 다산학 이해와 그 의미」가 발표되었다. 여기에 김선희의 「남북한의 거울에 비친 실학과 다산」을 더하면, 2020년에는 정약용에 관한 초기 연구 성과들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모두 5편 발표되었다. 그리고 노경희와 김국화의 논문은 각각 『대동수경』과 『이담속찬』인데, 이 두 저서는 기존에 부족했던 정약용의 저서들이다. 이들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후에 두 저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될 것을 기대할만한 부분이다. 한편 김호는 손암 정약전과 정약용에 관한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이상으로 2020년 발표된 한국 실학 관련 논문을 인물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본장에서는 2019년 한국 실학에 관한 연구 경향에서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 논문을 분석 및 비평해보겠다.

1) '실학'의 외연

실학 담론에서 논쟁적인 부분은 크게 실학의 외연에 관한 문제와 특성에 관한 문제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외연'이라 함은 어떠한 학자 혹은 특정한 학문적 경향을 실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2020년에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실학의 외연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살펴볼 문제는 '조선 양명학은 실학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문제는 실학 담론이 이루어진 초기부터 논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양명학과 실학의 관계를 강조했던 인물은 위당 정인보다. 이봉규는 정인보에 대하여 "그는 양명학의 실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실심과 실사를 결합한 맥락에서 '실학'의 의미를 세웠다."고 주장한다.[1] 또한 이봉규는 정인보가 하곡 정제두와 이건방으로 이어지는 강화양명학의 전통과 양명학으로부터 메이지유신의 원동력을 발견한 이노우체 데츠지로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2]

---

1 이봉규, 『초기 실학 연구의 학술사적 의의』, 『다산학』, Vol.36, 다산학술문화재단, 2020, 27쪽

2 이봉규, 위의 논문, 28쪽

실학과 양명학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2020년에도 여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초기 실학자에 관한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한 두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황인옥의 『사변록 중용』의 양명학적 양상 고찰」은 초기 실학자 가운데 한 명인 서계 박세당의 경학에 대하여 '양명학적 양상'을 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근식의 『백호 윤휴의 『대학』 해석 신연구』는 백호 윤휴의 경학을 성리학적 혹은 양명학적이라고 주장했던 기존의 연구를 비판하면서, 그의 경학이 원시 유학을 지향하는 '고학적(古學的)'인 특징을 띈다고 주장한다. 비록 다른 실학자에 관한 연구이지만, 윤휴와 박세당은 모두 주희가 설정한 『대학장구』의 체제에 반대하면서 『고본대학』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황인옥이 실학과 양명학의 관계를 보다 강조하는 입장에 가깝다면, 서근식은 실학을 성리학 및 양명학과도 구분하려는 입장에 가까워 보인다.

이어서 두 논문의 신빙성을 따져보도록 하자. 먼저 황인옥은 박세당이 두 근거로 양명학을 접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황인옥은 박세당이 동지사 서장관을 역임하면서 연경에 다녀왔다는 기록을 근거로, 그 과정에서 양명학을 접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3] 또한 그는 박세당이 지천 최명길을 통하여 화곡 정제두의 양명학을 접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4] 최명길의 손자인 명곡 최석정은 정제두와 친구 관계였으며, 최명길의 형인 이재 최내길이 정제두의 장인이다. 이를 근거로 황

3 황인옥, 『『사변록 중용』의 양명학적 양상 고찰』, 『유학연구』, Vol.5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0, 30쪽

4 황인옥, 위의 논문, 30 ~ 31쪽

인옥은 최명길이 정제두를 통하여 양명학자 되었고, 박세당이 최명길의 학문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박세당이 양명학을 긍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황인옥이 제시하는 근거들은 정황적 가능성일 뿐, 직접적인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그는 박세당의 「영의정완성부친군최공신도비(領議政完城府院君崔公神道碑)」을 인용하면서 "만약 서계가 최명길의 학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거나, 최명길의 학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면 신도비명의 작성을 부탁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도비'라는 문체가 본디 고인의 사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세당이 양명학에 부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최명길의 학문을 부정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신도비를 부탁할 때 고인과 저자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에도 저자의 학문적 권위 및 정치적 영향력 등 다양한 사항들이 고려되었다. 또한 박세당이 연경을 다녀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박세당이 연경에서 양명학을 접했다'는 사실을 보증해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황인옥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문헌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황인옥이 제시하고 있는 『사변록 중용』에서 양명학적 특징을 보이는 근거들은 대체로 유학의 일반적인 특징에 가까워 보인다. 황인옥은 박세당이 성(性)·도(道)·교(敎)를 일원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계구(戒懼)와 신독(愼獨)을 하나의 공부로 이해한다는 점, 중(中)을 마음의 본체로 화(和)를 마음의 작용을 이해한다는 점, 치중(致中)과 치화(致和)를 일원화하려는 경향이 왕양명의 『중용』 이해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도·교를 일원으로 이해하려

는 경향, 중을 마음의 본체로 화를 마음의 작용을 이해한다는 점과 치중과 치화를 일원화하려는 경향은 유학의 일반적인 이해 방식에 가깝다. 이는 『중용』의 경문이 이미 그렇게 이해되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박세당이 양명학을 기반으로 『중용』을 이해했다면, 마음(心) 혹은 양지(良知)의 역할을 보다 강조했어야 한다. 하지만 황인옥이 "서계는 '양지'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5]다고 서술하고 있듯이, 박세당은 양지를 강조하지 않는다. 황인옥은 박세당의 '마음의 밝음(心明)'이라는 표현이 양지와 유사하다고 주장[6]하지만, '특정한 표현이 양지와 유사하다'는 것과 '양지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점들이 유학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더라도 박세당이 왕양명의 경학을 통하여 이러한 경향을 보였다면, 박세당의 경학에 대하여 '양명학적'이라고 불러도 무관할 것이다. 하지만 황인옥이 박세당이 양명학을 접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박세당의 교우관계에만 국한되어 있어, 신빙성을 보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서, 정약용은 매산 홍직필과 교유하였다. 하지만 홍직필은 성리학자로 평가받지만, 정약용은 '실학의 집대성자'로 평가받는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교유 관계가 학문적 영향 관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박세당의 경학을 '양명학적'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서근식의 논문을 살펴보자. 그 논문의 특징은 윤휴의 경학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 논증한다는 점과 윤휴의 경학을 성호

5 황인옥, 위의 논문, 35쪽
6 황인옥, 위의 논문, 35쪽

학파의 경학과 연결시킨다는 점이다. 먼저 '윤휴 경학의 특징'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자. 박세당과 달리 윤휴는 『대학』을 주석하면서 '양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에 따른다면, 윤휴가 양명학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서근식은 윤휴가 양지를 강조한 것은 선지후행(先知後行)을 강조하는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앎의 문제를 양지로 해결하면서 실천을 보다 강조할 의도였다고 주장한다.[7] 또한 그는 양지가 『맹자』의 개념이므로, 양지를 강조한다고 해서 반드시 양명학은 아니라고 주장한다.[8] 하지만 성리학을 '선지후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리학이 양명학에 비하여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점에서, 성리학이 '선지후행'을 강조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앎의 문제를 양지로 해결'한다는 추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이 부족하다.

이어서 서근식은 『대학』의 저자 문제(윤휴가 『대학』이 자사의 저작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이후, 성호학파 내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대학』의 학문주체에 대한 문제(『대학』에서 말하는 주체를 군주로 이해하려는 경향), 명덕에 관한 문제(명덕을 효제로 이해하는 경향)에 대하여 윤휴와 성호좌파의 학자들(신후담, 이병휴, 정약용)이 같은 전거를 활용하는 등 유사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근거로 서근식은 자신의 논문에 대하여, 금장태[9]와 정호훈

7 서근식, 『백호 윤휴의 『대학』 해석 신연구』, 『율곡학연구』, Vol.41, 율곡연구원, 200쪽

8 서근식, 위의 논문, 200쪽

9 금장태,『백호 윤휴의 성리설과 경학』, 『인문논총』, Vol.9, 서울대학교인문학연구소, 1998

[10]이 윤휴와 성호학파의 연관성을 주장했지만 고증이 미진했던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11] 그런데 '윤휴와 성호학파의 연관성에 대하여 고증이 미진했다'는 평가는 고려의 여지가 있다. 성호학파의 학문적 연원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익이 뚜렷한 사승관계 없이 가학(家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원재린[12]은 『숙종실록』에 이익의 아버지인 매산 이하진과 윤휴가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 녹암 권철신이 성호학파의 정체성을 '이황 – 윤휴 – 이익'으로 상정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윤휴와 성호학파의 관계를 논증하였다. 다만 원재린의 논의는 사승·교유·정파 등 인물들 간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 역시 존재했다. 따라서 서근식의 논문은 선행 연구에 대한 파악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보이기는 하지만, 윤휴와 성호학파의 관계를 경학적인 측면에서 논증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할 만하다.

종합하자면, 양명학과 실학의 공통분모는 결국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황인옥은 "그(박세당)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어려운 경전 속에서 찾았고, 인간에 대한 실천력을 굳게 믿었다"[13]고 하여, 박세당 경학의 특징이 실천을 강조하는 측면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서근식은 윤휴가 양지를 강조했던 것은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실학의 외연에 양명학이 포함되는 것은

10 정호훈, 『윤휴의 『대학』 해석과그정치적성격』, 『다산과현대』, Vol.7, 연세대학교 강진다산실학연구원, 2014

11 서근식, 위의 논문, 208 ~ 209쪽 참조

12 원재린, 『조선후기 성호학파의 형성과 학풍』,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13 황인옥, 위의 논문, 50쪽

'실학은 실천지향적인 학문'이라는 규정에 양명학이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양명학에 비판적이었던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학문 풍토를 고려한다면, 어떤 사상가가 양명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밀한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

2) 정약용의 '백성(民)'에 대한 인식

2020년에는 정약용이 백성(民)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서 정경민의 「정약용의 재원확보구상과 관료 및 민의 역할」, 김한식의 「다산 사상에 나타난 민권논리」, 김택과 이홍기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역병관과 애민사상 연구」, 한정길의 「다산 정약용의 『대학』 이해와 그 정치사상적 의미」 등이다. 이 가운데 김한식과 한정길의 논문을 살펴보겠다.

각 논문에서 주장하는 정약용의 백성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 김한식은 "서학을 바탕으로 다산은 성리학을 비판한 것"[14]이라 전제하고, "특히 민권논리의 전개과정, 곧 그의 인간에 대한 해석이나 정치의 시원에 관한 언급 그리고 유기체 주장 등에 이러한 서학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15]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원목(原牧)」, 「탕론(湯論)」 등을 분석하여, 정약용의 백성에 대한 인식을 지도층 형성 시원에 대한 논의와 군(君)과 민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이때 '지도층 형성 시원에 대한 논의'란 정약용이 천자를 '선천적으로 존재

14 김한식, 『다산 사상에 나타난 민권논리』,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9권, 제2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20, 40쪽

15 김한식, 위의 논문, 47쪽

했던 것이 아니라 "군중의 추대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한다.'는 점이다. 이는 「원목」에서 정약용이 마을 사람들의 추대에 의하여 이정(里正)을 추대하고, 이정들이 모여서 당정(黨正)을, 당정들이 모여서 주장(州長)을, 주장들이 모여서 국군(國君)을, 국군들이 모여서 방백(方伯)을, 방백들이 모여서 황왕(皇王)을 추대한다고 주장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다음으로 '군과 민의 유기적 관계'란 "그 사회 내 각 개체의 자존성이 인정되고 기능상 서로 보완됨으로써 그 사회의 발전을 이룩한다는 의미의 유기체로서 '초기 기능주의'(original functionalism)나 혹은 각 부분이 각기의 기능수행으로 전 사회의 체제유지에 기여한다는 '구조기능론'의 주장과 흡사하다."[16]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김한식은 정약용이 '민'만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민을 다른 개체와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김한식의 논의에는 몇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먼저 논문의 내재적인 문제로, 그는 본문에서 정약용의 민권논리의 전개과정이 서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결론에서는 "다산의 민권논리가 서구의 민권 사상과 구별되는 점은, 서구의 경우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근대사회의 발전과정이 이루어져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을 통한 이데올로기적 속성에서 민주주의 논리, 시민사상으로 전개됐음에 비해, 다산의 경우는 산업혁명을 거치지 않은 문화 바탕에서 민주논리가 제기됐다는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17]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서 '서학에 영향을 받은 정약용의 민권논리'가 '다산의

16 김한식, 위의 논문, 51쪽

17 김한식, 위의 논문, 57~58쪽

민권논리가 서구의 민권 사상과 구별되는' 이유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김한식은 정약용의 민권논리가 서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탕론」·「원목」 등을 분석한다. 이 논지 전개는 '정약용이 서학의 영향으로 「탕론」 등을 저술했다'는 주장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탕론」 등에서 보이는 정약용의 설명 방식이 남뢰 황종희의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과 유사하다는 것은 정약용 전공자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정약용과 황종희의 정치철학을 비교한 선행 연구도 존재한다.[18] 또한 김한식은 『영연여작(靈言蠡勺)』이 정약용의 심성론 형성에 끼친 영향을 설명할 뿐, 민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서학서가 영향을 미쳤는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서학에 영향을 받은 정약용의 민권논리'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편 한정길의 논문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약용의 『대학공의(大學公議)』를 분석하고 정약용의 정치철학을 설명하면서, 기타 경학서들을 통하여 보충한 것이다. 한정길은 스스로 "다산의 『대학』 이해가 주자학이나 양명학과 비교할 때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함축하는 정치사상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19] 따라서 논문 전체의 논지 전개와 선행 연구들에서 주희의 『대학장구』와 정약용의 『대학공의』를 비교 분석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논문의 특징은 왕양명의 『대학』 이해와 정약용의 『

18 함규진, 『전통 동아시아 사상의 민주주의적 가능성』, 『유교사상연구』, Vol.63, 한국유교학회, 2016

19 한정길, 위의 논문, 137쪽

대학공의』를 비교 분석한 것이 이 논문의 특징이다.

한정길은 『대학공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정약용은 『대학』을 태학(太學)의 교재라고 주장한다. 명명덕(明明德)의 주체를 군주를 중심으로 한 목민관으로 한정한다. 친민(親民)을 태학에서 효(孝)·제(弟)·자(慈)의 예(禮)를 거행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본받아 효·제·자를 실천하여 서로 친하게 지내게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격물치지와 육조목을 분리시키고 격물치지를 육조목의 선후(先後)와 본말(本末)을 헤아려서 아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의장」을 독립시키면서 성의(誠意)를 수기치인의 근본으로 파악한다. 「치국평천하장」을 강조하면서, '노노(老老), 장장(長長), 휼고(恤孤)'를 평천하의 이념으로, '혈구지도(絜矩之道)'와 '서(恕)'를 평천하의 요체로, '용인(用人)'과 '이재(理財)'를 평천하의 강령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정길은 정약용이 『대학』의 태학의 교재인데 태학의 교육 대상의 귀족의 적장자로 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다산의 관점이 지니는 정치사상적 함의는 군주를 중심으로 한 관료정치를 지향하고 있다."[20]고 주장한다. 또한 본문에서는 "『대학』을 목민을 위한 정치사상서로 읽어내는 다산에게서 일반 백성은 학문이나 정치주체로 등장하지 않는다. 다산은 '민(民)'을 통치와 교화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정약용은 민을 통치와 교화의 대상일 뿐 정치적 주체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이렇듯 김한식과 한정길의 논문이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게 된

20 한정길, 위의 논문, 176쪽

것은 서로 다른 원전을 근거로 정약용의 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정약용이 민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보는 주장들은 대체로 「원목」·「탕론」·「일주서극은편변(逸周書克殷篇辨)」 등을 중심으로 논하고, 민의 정치적 역할을 부정했다고 보는 주장은 『대학공의』·『목민심서(牧民心書)』「변등(辨等)」 등을 중심으로 논해왔다. 이에 대하여 「원목」·「탕론」·「일주서극은편변」 등은 초기 저술이지만 『대학공의』·『목민심서』는 후기 저술이므로, 정약용이 초기에는 민의 정치적 역할에 대하여 긍정적이었지만 후기에는 민의 정치적 역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21] 그런데 「원목」·「탕론」이 1810년 이전의 저술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서극은편변」은 서술 방식과 '내가 이전에 「탕론」을 썼었는데, 지금 다시 이것을 써서 그것을 이었다'는 내용 때문에 후기의 저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2]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정약용의 민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는 연구자가 각 원전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각 원전들의 저술 시기를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상이하다. 2020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21 함규진, 위의 논문, 19쪽: "그러나 정약용의 이러한 '민권론적 사상'이 제시도니 저작들은 대부분 초기의 단편들이며, 『상서고훈』, 『경세유표』 등의 후기 저작에서는 '五福을 내릴 권한은 전적으로 군주의 손에 있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그 권한이 아래로 옮겨간다면 나라가 다스려지지 못한다', '군주의 지휘 아래 하나의 부대처럼 일사분란하게 통솔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 하여 오히려 절대왕권론자 같은 면모를 나타냈다."

22 백민정, 『정약용 정치론에서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물음』, 『철학사상』, Vol.29,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8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2020년에 실학 관련 분야에서 발표된 논문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레포트는 기존보다 개방적인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조와 같은 인물을 포함하기도 하였고, 문학계·사학계에서 발표된 논문도 일부 포함시켰다. 이는 그와 같은 논문들이 실학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2020년에 발표된 논문들을 인물별로 분류해보면, 유형원 5편, 박세당 4편, 성호학파 21편, 북학파 15편, 정약용 44편, 정조 7편, 기타 11편이다. 이 가운데 둘 이상의 실학자들을 비교한 연구가 5편(이익-정약용 1편, 정약용-유형원 1편, 유형원-유수원-정약용 1편, 윤휴-정약용 1편, 홍대용-정약용-최한기 1편)이다.

성호학파에 대하여 2017년 7편, 2018년 12편, 2019년에는 1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2020년에는 박사논문 1편을 포함하여 총 2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를 다시 인물별로 분류해보면 성호학파의 여러 인물들을 비교연구한 논문이 3편, 성호 이익에 대한 연구가 8편, 순암 안정복에 대한 연구가 6편, 하빈 신후담에 대한 연구가 4편이다. 예년에 비하여 안정복에 대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2020년 『순암집』 완역 출판을 전후로 안정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호좌파 혹은 신서파로 분류되는 신후담에 대한 연구과 성호우파 혹은 공서파로 분류되는 안정복에 관한 연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특기할 만다.

2020년에는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연구가 44편 되었는데, 2019년에

60편이 발표되었던 것에 비교한다면, 다소 줄어든 숫자이지만, 2020년에 발표된 실학 관련 논문들을 인물별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산학』 36호는 정약용에 관하여 연구하던 초기에 이루어진 작업들에 대한 정리 및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김선희의 「남북한의 거울에 비친 실학과 다산」을 더하면, 2020년은 초창기에 이루어진 정약용에 대한 연구를 정리했던 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 철학 혹은 신학의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4편(이숙희 2편, 엄국화 1편, 송의원 1편) 발표되었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작년의 보고서를 참조하여 경학, 철학, 정치경제,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때 '경학'은 연구의 초점이 특정 경학서를 분석하는 데 맞춰진 논문들이다. 예학과 관련된 논문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정치철학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분류의 일관성을 위하여 경학으로 분류하였다. 심성론, 수양론, 윤리학 등과 관련된 논문은 철학으로 분류하였다. 정치경제 부분은 정치철학적인 접근 방식에 비하여 구체적인 정치·경제 제도의 실효성 등과 관련된 논문들다. 이외의 논문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대체로 서지학 혹은 이전의 연구성과를 정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논문들이다.

2020년에는 경학 부분에서 박사 논문 1편을 포함하여, 총 2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경학에 대한 연구는 2017년 7편, 2018년 13편, 2019년 27편이었다. 2019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2017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숫자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시 대상 저서별로 분류해보면, 특정한 인물의 경학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논문 2편, 『중용』 5편, 예학과 관련된 논문 5편, 『대학』 4편, 『주역』 4편, 『시경』 2편, 『장자』 1편, 『소학』 1편이다. 이

를 통해 2020년의 경학 연구는 『중용』과 『대학』이 연구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예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주목도가 덜한 『시경』과 『소학』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는 점도 특기할만하다.

철학 분야에서는 총 5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2020년에 발표된 논문들을 주제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숫자다. 이를 다시 세부 주제로 분류해보면, 2019년과 유사하게 심성론 및 윤리학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2020년에 발표된 철학 관련 실학 논문들 가운데 몇몇 편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서학 혹은 천주교와 실학의 관계에 관한 논문이 6편 발표되었는데, 대부분은 정약용과 서학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지만, 박지원과 서명응의 서학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실학과 서학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정약용을 중심에서 여러 학자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학'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논문들이 4편 발표되었다. 2019년에는 실학을 개념적으로 분석하는 논문이 3편 발표되었는데, 2020년에도 비슷한 숫자를 유지했다. 이는 학계에서 여전히 '실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에는 실학 담론을 국내에 국한시키지 않고, 동아시아라는 공간적 배경 위에서 실학 담론을 고찰한 논문 2편이 발표되었다.

정치경제 분야 논문은 총 17편이다. 이 가운데 정약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논문이 모두 10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북학파 4편(종합 1편, 박제가 1편, 박지원 2편), 안정복에 대한 논문이 2편

발표되었다.

기타로 분류되는 논문은 총 11편이다. 이는 2019년의 37편에 비하여 줄어든 숫자인데, 2019년과 2020년의 분류 기준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편의 가운데 10편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정약용과 관련된 것으로, 기타 분야에서 정약용에 관한 논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에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 실학과 양명학의 관계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에 서있는 논문들이 보였다. 이는 실학 연구 초창기에 정인보가 실학과 양명학의 관계를 강조했을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문제였으며, 현재까지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학의 외연에 양명학이 포함되는 것은 '실학은 실천지향적인 학문'이라는 규정에 양명학이 부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양명학에 비판적이었던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학문 풍토를 고려한다면, 어떤 사상가가 양명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엄밀한 논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약용의 민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상이한 결론을 도출한 논문들이 있었다. 이는 여러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원전을 근거로 정약용의 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정약용의 민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는 연구자가 각 원전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각 원전들의 저술 시기를 언제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상이하다. 2020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